

## 中國 當代兒童小說\* 속에 나타난 小皇帝 징후

— 《피피루 총동원》, 《큰머리 아들과 작은 머리 아빠》,  
《개구쟁이 마샤오》를 중심으로

송연옥\*\*

### <目 次>

1. 들어가며
2. '슈퍼 아빠'의 출현: 아버지와의 소통
3. 소황제의 형제들: 새로운 관계 맺기
4. 악동과 판타지: 반항과 모험의 소황제들
5. 나가며

## 1. 들어가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동의 발견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아동문학의 선진국이라 불리 우는 영국에서도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아동이 독자

\* 현재 중국의 아동문학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UN의 <세계아동권리협약>을 기준에 따라 만 18세 이전까지로 잡는다. 따라서 아동문학은 만 18세 이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구분되는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쓰인 '유아문학(幼兒文學)', 초등학교 대상의 '동년문학(童年文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년문학(少年文學)'으로 나뉜다. (王泉根, <論少年兒童年齡特征的差異性與多層次的兒童文學分類>, 《現代兒童文學主潮》, 重慶出版社, 2000. p.485.) 한국의 아동문학에서 아동이라 하면 보통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이 끝나고 중학교 1,2학년까지, 즉 만3세에서 14세까지에 걸친 어린이를 지칭하며 이는 중국식 연령구분과는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초등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동년 소설에 해당한다.

\*\* 수원과학대 중국어강사 yosong21@hanmail.net

적인 요구와 관심을 가진 존재라는 시각이 생겨났다. 전통사회 속에서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으로 간주되며 아동의 독특한 발달단계와 사고방식에 대한 접근은 무시되었고 아동을 위한 읽을거리라 해봤자 고대사회에서 구비 전승되어 온 설화, 민담 내지는 ‘사회화’ 혹은 ‘종교인으로서의 교육’을 위한 교훈적 성격이 짙은 지침서 등이었다. 18세기 산업혁명의 결과로 영위케 된 경제적인 부유함은 중산층의 발전 및 독서인구의 증가를 야기하였고 가정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케 했다. 이에 소외되고 무시되었던 계층의 하나였던 아동은 19세기 낭만주의 사조의 기류에 편승하여 ‘우리르고 본받아야할 동심의 소유자’로 격상되었으며, 아동문학은 출판업 자체의 발전과 함께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아동의 발견은 20세기에 들어서서 5·4 신문화 운동 시기에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동문학은 문학이 정치와 신념으로부터 놓여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된다.<sup>1)</sup> 그런데 이 시기는 ‘시장경제 개방정책’이 시행되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유를 찾는 시기임과 동시에 정부주도의 ‘한 가정 한 자녀’로 대변되는 산아제한정책으로 자녀를 귀히 여기다 못해 소황제라고 일컫게 되는 시기와 맞닿아 있다.

아동문학은 단순히 아동을 위한 교훈적인 이야기, 요정과 판타지 모험이

1) 중국의 아동문학의 발전과정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중국 사회의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 아이들은 그저 성인의 재산이나 부속물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5·4 신문화 운동 시기에 이르러 인간에 대한 발견, 그 중에서도 소외되고 차별받던 여성과 아동의 발견은 아동문학에 반짝이는 부흥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이후 3,4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 존망성쇠의 갈림길에 선 중국에서 아동문학은 혁명의 투사, 노동인민의 양성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이용된다. 198,9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동 본연의 관점을 되찾게 된다. 중국은 1991년, UN에서 제정한 《세계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며 유사 이래 최초로 아동을 인정하고 그 권리에 대한 입장표명을 공식화하였으며, 다소 무겁고도 가슴시린 주제에 머물던 아동문학은 새롭고 다양한 주제, 유머스러운 풍격으로 전환하게 된다. 송연옥, <21세기 중국 아동문학의 현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우논총》 제21집, pp.9-11.

존재하는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해리 포터》 시리즈가 전 세계의 아동독자 뿐 아니라 성인독자까지 아우르며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발전한 경우나, 일본 구리료헤이(栗良 平)의 동화 《우동 한 그릇》이 일본 국회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어 대대적인 사회이슈가 된 것처럼 그것은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며 문학 자체이다. 아동문학은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필자는 문학과 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문학 작품들을 읽던 중,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소황제라는 문화현상과 당대 아동문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그러면서 중국의 당대 아동 소설 속에서 중국만의 특수한 몇 가지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가족과 친구관계, 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문학적인 현상들과 당대 중국 사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또한 위의 현상들과 소황제 문화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소황제라는 문화현상이 중국만의 특수한 것이라면 이를 반영한 중국의 당대 아동문학과 세계 다른 나라의 문학과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본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궁금증을 품고 시작되었다.

중국 당대 아동문학은 90년대부터 활발하게 발전을 거듭해가며 주제나 소재 면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소년소설(少年小說)의 주된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소설은 순수예술지향적인 차오원쎬(曹文軒)의 《청동해바라기 青銅葵花》 《꿈의 무늬 根鳥》 등과 중국의 당대 도시 청소년들의 생생한 캐릭터화, 유머스런 묘사로 사랑을 받고 있는 친원쥘(秦文君)의 《남학생 자리 男生賈里》, 《여학생 자메이 女生賈梅》 등의 학원소설, 심리적인 병을 앓고 있는 소년의 심리와 가족 간의 화해를 그린 황베이자의 문제소설 《상큼한 오렌지 작은 물고기 親親我的媽媽》 등을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세계 아동문학에서 동물과 자연과 관련된 소설은 또 하나의 독자적인 든든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셴스시(沈石溪)의 동물소설 시리즈, 리우셴핑(劉先

平)의 대자연 모험시리즈 등이 전통적이고 특색 있으며 어린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판타지 아동소설이 유행하고 발전하는 추세를 보인다. 인젠링(殷健靈)의 《바람 속의 앵두 風中之櫻》나 중국 전통신화와 판타지의 결합을 선보인 쉘타오(薛濤)의 《반고와 투명한 소녀 盤古与透明女孩》 등이 있다. 무협과 신신, 판타지가 결합된 온라인 형식의 판타지 소설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생태나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작품들, 기실문학(記實文學), 역사소설 등의 다양한 주제가 아동문학 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다. 중국에서 다루어지는 아동문학 연구방향 또한 90년대 이후 다양화, 다원화된 아동문학작품에 발맞추어 다양한 학문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2)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동년소설은 소년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 양홍잉(楊紅櫻)의 《개구쟁이 마샤오 淘气包馬小跳》 시리즈가 대대적인 베스트셀러로 사랑을 받게 되면서 동년소설의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중국 당대 아동 소설 중에서

- 2) 자오정샤(趙靖夏)의 <아동문학을 기조로 삼은 아동극 교육 論以兒童文學爲根基的兒童戲劇教育>(上海師範大學 박사논문, 2006)이나 허우잉(侯穎)의 <아동문학의 교육성 論兒童文學的教育性>(東北師範大學 박사논문, 2008) 엔춘메이(閔春梅)의 <동화정신과 아동심미교육 童話精神與兒童審美教育>(南京師範大學 박사논문, 2007) 등은 교육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아동문학이 본래 공리적인 목적에 의해 쓰여진 피동적인 문학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이 외에도 아동소설의 주요 주제라 할 수 있는 성장을 다룬 탄펑샤(談鳳霞)의 <인간과 자아의 시성 추구(“人”與“自我”的詩性追尋)>(南京師範大學 박사논문, 2007), 동물과 자연을 다룬 쑤위예(孫悅)의 <동물소설--인류의 녹색 응사(動物小說--人類綠色凝思)>(上海師範大學 박사논문, 2008) 등이 있다. 이외에도 아동문학과 영상매체의 관계를 다룬 왕징(王晶)의 <문학 클래식에서 디지털 영상매체까지(從文學經典到數碼影像)>가 있다. (上海師範大學, 2010) 한국에서는 중국 아동문학이 아직은 미개척 연구 분야에 머물고 있으나 중국의 성장 소설 분야가 한국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등 관심을 받게 되면서 성장 소설 분야의 번역 및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선의 <중국 당대 진문군의 아동소설 『남생가리』와 『여생가매』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07)과 오춘화의 <한·중 여성 성장소설 비교연구>(국제문화대학원 박사논문, 2009), 최은정의 <90년대 중국여성소설에 나타난 아버지 부재와 딸의 성장 :池莉<이是一條河>, 陳染<私人生活>, 虹影<饑餓的女兒>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김영옥의 <중국 아동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중국어문학 제53호 (2009. 6) pp.219-239) 등이 있다.

동년소설(童年文學)을 다루었는데, 이는 이 시기가 아동이 자아 중심적인 유아기적 사고에서 벗어나 학교와 또래사회에 속해 정식으로 사회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과 가정, 학교와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소황제의 생활을 밀착하여 관찰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로 사용한 작품은 정위엔지에(鄭淵潔)의 《피피루(皮皮魯)와 루시시(魯西西)의 판타지 모험이야기 皮皮魯總動員》<sup>3)</sup>, 정춘화(鄭春華)의 《큰머리 아들과 작은 머리 아빠 시리즈 大頭兒子和 小頭爸爸全集》<sup>4)</sup>, 양홍잉(楊紅櫻)의 《개구쟁이 마샤오 淘氣包馬小跳系列》<sup>5)</sup> 등이다. 위의 작품들은 당대 중국의 도시 소황제 형상을 성공적으로 그려내었고 그 문학성을 인정받아 각종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작품들이며 소황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수 년 동안에 걸쳐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시리즈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한 플롯을 지닌 단행본이 수십 권에 걸쳐 진화되었다. 게다가 위 작품들은 중국의 어린 독자들의 후속편 요구와 관심

- 
- 3) 2011년 2월 10일, 정위엔지에의 소설 속 주인공 피피루의 30세 생일잔치가 열린 자리에서 《피피루 총동원 皮皮魯總動員》이 2000만 권이 팔렸다고 발표되었다. 조판 횟수만도 수만 번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 출판사상의 기적이라고 한다. 《피피루 총동원》은 매해 400만 권 이상이 팔리고 있는 셈이다. 정위엔지에는 26년째 반월간지 《동화대왕 童話大王》을 펴내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希望工程에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윈촨(汶川) 지진, 칭하이(青海) 지진재해지역 등지에 가장 많은 성금을 보낸 자선작가로도 유명하다. <http://baike.baidu.com/view/5160.htm>
- 4) 정춘화의 대표작 《큰머리 아들과 작은 머리 아빠 大頭兒子和 小頭爸爸》 시리즈는 300만 권이상이 인쇄되었고 동명 애니메이션이 수년간 인기리에 방영중이다. 작품에 얽힌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자신과 잘 놀아주지 않는 아빠한테 “다시 날 때리면 이제 아빠는 필요 없어요. 난 작은 머리 아빠를 찾아 갈래요” 라고 말했다는 한 어린이의 말이 자주 회자된다. “큰머리 아들의 엄마”는 정춘화의 대명사로 불린다. <http://baike.baidu.com/view/846266.htm>
- 5) 《淘氣包馬小跳》 시리즈는 20부가 출판되었고 그 판매량은 1200만권을 웃돈다. 전국의 10개 중심도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이 책을 읽었다는 통계도 있다. 매 편당 25분 정도의 드라마로 각색하여 방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http://baike.baidu.com/view/23370.htm>

어린 반응에 부응하여 자매편 및 애니메이션, 드라마 및 영화 등의 매체로까지 영역을 확장시켰다. 중국의 어린이들은 책 속의 주인공과 함께 성장한 셈이다.

본고에서는 위 텍스트의 고찰을 통해, 당대 아동소설 속에서 보이는 소황제의 문화적인 징후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은 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어떤 기대와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 2. ‘슈퍼 아빠’의 출현: 아버지와의 소통

루쉰은 《수감록 隨感錄 25》에서 중국인은 어릴 적에는 인간취급을 받지 못하고 커서도 사람 뭇을 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기만 할 뿐 잘 기르고 못 기르는 것은 관심 밖이라고 탄식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식의 아버지가 아니라 ‘인간’의 아버지라고 주장한다.<sup>6)</sup> 당시 루쉰의 쓴소리는 중국의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단면을 엿보게 한다. 중국의 전통사회 속에서 아버지는 생명을 주었다는 이유로 존경받고 효도해야 마땅했던 대상이었다. 아버지는 효와 충이 강조되던 유교주의국가에서 하나의 절대군주요, 무너지지 않는 탑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다.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인 중국은 가정경제에서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지녔으며 가사활동과 자녀양육에 있어서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외동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더 이상 아버지는 자녀에게 군림하거나 무관심한 지엄한 아버지의 형상이 아니라 가족과 더 가까이 하고픈 바람을 지닌 아버지가 되었다. 다음은 중국 브랜드 ‘슈퍼 아빠’를 창조한 《큰머리 아들과 작은 머리 아빠》의 일부 부분이다.

침대 발치에서 발가락이 지지개를 쳐듯 꼬물거리는가 싶더니 이불

6) 루쉰 저, 이육연 역, 《아침꽃을 저녁에 줘다》, 서울: 예문, 2005, p.31.

속에서 작은 머리 아빠의 땅콩만 한 머리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이어서 큰머리 아들의 수박만 한 머리도 튀어나왔어요. 침대에서 일어난 큰머리 아들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엄마가 외출하기 전에 미리 녹음해 둔 테이프를 틀었어요.

“아들! 잘 잤니? 아침밥 먹고 나면 아빠랑 대청소하는 거 알지? 이따 엄마가 돌아오면 검사할 거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 알았지? 그럼 이따 보자!”

그제야 잠이 확 달아난 큰머리 아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와, 신나다! 아빠, 오늘 엄마는 외출하고 집에 없으니까 우리 실컷 놀아요!”

작은 머리 아빠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너석, 신나긴 뭐가 신나? 엄마가 오늘 대청소하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 청소해요. 저 청소 잘할 자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못 하게 해서 한 번도 안 해 봤지만 두고 보세요. 오늘 솜씨를 보여 줄 테니까!”

“그래, 좋아! 그럼 아빠는 주방을 청소할 테니까 넌 거실을 청소하렴. 대신 책임지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야 한다. 알았지?” (중략) 큰머리 아들은 먼저 거실 바닥에 온갖 세제를 몽땅 뿌린 뒤, 그 위에 다시 물을 뿌린 다음, 신나게 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근데 참 신기하죠? 미끈거리는 거실 바닥을 이리저리 누비는 큰머리 아들의 발가락 사이로 거품이 몽게몽게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중략) 거품은 점점 더 많이 피어올라 거실 천장까지 차오르더니 이내 주방 안까지 넘쳐흘렀어요.7)

큰머리 아들과 작은 머리 아빠는 찰떡궁합 친구이다. 이들은 어머니가 시킨 집안일도 하나의 놀이로 바꾸어 신나게 즐기는 놀이파트너이다. 아빠는

7) 정춘화, 하진이 역, <대청소>, 《사고몽치 아들과 못 말리는 아빠 1》, 문학수첩 리틀북, 2010, pp.25-26.

아들의 티무니없는 장난과 요구에도 귀찮아하는 법이 없다. 큰머리아들과 작은 머리 아빠가 벌이는 끝도 없는 에피소드들을 읽다보면 어른이 되어가면서 잃어버린 동심과 천진스런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들父子는 도움이 필요한 조그만 생명이나 사람을 그냥 보지 못하고 함께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짜내어 순간순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급기야 나중에는 특별도시의 시장으로 뿔히기도 한다.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으로 텔레비전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친구 같은 아빠나 엄마가 캐릭터로 등장하는 동화나 만화가 있었던가? 아님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본 적이 있었던가? 동시대, 바다 건너 타이완 장여우위(張友漁)의 《우리아빠는 백수건달 我的爸爸是流氓》(1998)속에 등장하는 하고 한 날 술과 도박에 절어 부인과 아이들을 구타하는 아버지와 극심한 대비를 이룬다.

마티엔 씨는 어렸을 때부터 놀기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더 재밌게 놀았어요. 장난감 회사의 사장이 되니 장난감 회사 안이 온통 장난감 천지였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내키는 대로 실컷 놀 수 있었답니다. 마티엔 씨는 낮엔 회사에서 놀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과 함께 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샤오는 아빠랑 놀지 않았어요. 놀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중략) 마티엔 씨는 마샤오가 숙제를 끝마치기만을 즐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다트를 하려구요. 8)

《개구쟁이 마샤오》의 아버지 마티엔 씨는 아들 마샤오를 본 따서 만든 인형으로 장난감회사의 부사장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는 숙제하는 아들을 유혹하여 놀고 싶어 하고 저녁 먹을 때마다 마샤오의 학교생활을 들으며 깔깔대며 웃는 아버지이다. 객관적으로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얼굴도 그다지 잘나

8) "馬天笑先生從小玩到大，現在更好玩了，做了玩具廠的廠長，工廠里到處是玩具，各種各樣的玩具，隨時隨地，隨便他玩。馬天笑先生白天在廠里玩，回到家裏就想跟他兒子玩，但馬小跳不跟他玩，因為他沒時間玩。(…)馬天笑先生一直在等馬小跳做完作業，想和他玩飛鏢。" 楊紅櫻，〈貪玩老爸〉《淘氣包馬小跳系列-1》，接力出版社，2004，pp.29-30.

지 않은 마샤오가 누구보다 더 당차고 신 나는 아이인 까닭은 자신과 함께 놀아주는 친구 같은 아빠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보통 사회에서 회사의 고위급 인사인 아버지에게 예상되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마샤오의 아버지는 자식의 학교성적이나 모범생 역할 따위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소중한 외동아들이 더 즐기며 살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그 가운데 행복해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당대 중국아동문학에서 등장한 놀이친구 같은 아빠의 등장은 어떠한 문화적인 코드가 있는 것일까? 전통사회에서 그저 ‘성인의 축소판’으로 생각되어졌던 어린이는 소위 소황제로 급부상하게 하게 된다. 부모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자 국가나 시대의 사명 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아동에 대한 중시와 관심이 아동문학 작품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교훈이나 계도 등의 공리적인 목적 보다는 ‘아동 본위’에 입각하여 어린이 독자들이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아이들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풀어내고 있다. 《큰머리 아들과 작은 머리 아빠》나 《개구쟁이 마샤오》 시리즈는 일단 각 에피소드들이 재미있고 작품 내의 주인공 아동 뿐 아니라 그 친구 같은 아빠에게도 친근함을 느끼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동문학 작품 속에 이상적인 아빠가 등장했다’라는 말과 ‘요새 중국의 아버지들이 실제로 놀이 친구 같은 아빠이다’ 와 동격은 아니다. 정춘화는 《유아문학잡지 幼兒文學報》의 편집장으로 일할 때에 아버지들 자기들과 놀아주지 않는다며 하소연하는 어린이독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그녀는 아버지들이 좀 더 자식과 사랑을 나누고 부대끼며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머리 아빠’를 창조하게 되었다고 한다.<sup>9)</sup> 어찌 보면 놀이 친구 같은

9) <http://baike.baidu.com/view/846266.htm>

아빠의 등장은 중국사회의 또 다른 간절한 소망에 대한 반대급부, 즉 ‘嚴父가 필요한 사회가 아닌 이상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 주세요. 형제자매도 없는 외로운 세상에 말이에요.’ 하는 어린이들의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초(男超)현상<sup>10)</sup>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더욱 아들을 가진 부모들과 남자 아이들을 타겟으로 삼은 아동도서도 활개를 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동문학에서 현모양처식의 전형적인 스타일의 어머니는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가사에 그다지 얽매이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은 어머니 가사노동의 빈자리를 신 나는 놀이로 대체하며 즐긴다. 아버지는 이전 세대의 어머니가 했던 역할까지 확장되어 아이의 상담역할, 가정 내에서의 습관 지도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한편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도서들이 여성작가가 쓴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해볼 때, 여성작가 특유의 섬세함, 아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환상적인 초특급 중국 브랜드 ‘수퍼 아빠’를 붓 끝에 그려내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놀이 친구 아빠와 아들의 모험기를 읽고 자란 지금의 중국 어린이들이 자라면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문학의 긍정적인 힘에 기대어 밝은 희망을 품어 본다.

10) 정부주도의 계획생육정책으로 우선 하나만 낳아야 하다 보니 남아 선호 사상이 과도하게 확산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나이별 남녀 비율이 많게는 116 대 100 이상, 적게는 105 대 100 정도로 나타난다. 문제는 계획생육 정책이 계속 실시되는 한 남아 선호 분위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결혼 적령기의 남자가 결혼하지 못하는 비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표적이다. 이는 올해 초 런민(人民) 대학 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990년대 전후에 태어난 남자 가운데 약 10%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총각으로 늙어 죽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 보고서는 2007년 말 현재 30세 이하 남자 인구가 여성에 비해 무려 3000만명 정도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15세 전후에서는 이 수가 1800만 명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순도, <산아제한 30년에 총각은 슬피 울고 여자 아이 죽어가네 >, 《시사IN》 제19호 (2008-01-29), 서울: 참언론, pp.44-45.

### 3. 소황제의 형제들: 새로운 관계 맺기

세계의 우수한 아동문학 명저에서 형제자매 사이에 발생하는 에피소드들은 작품의 주요한 모티프가 되어 주인공이 자아를 찾아 성장에 이르도록 돕곤 한다. 영국의 유명한 아동문학 작가 E. 네스빗의 《보물을 찾는 아이들 *The Story of Treasure Seekers*》, 비벌리 클리어리의 《라모니는 아무도 못말려 *Ramona Quimby, Age 8*》, 독일 우베팀의 《달려라 루디 *Rennschwein Rudi Russel*》 등은 가난하고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형제자매들이 우애롭게 사랑하며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동심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형제관계는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며 ‘나’와 ‘너’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의 형제관계를 통해 최초의 경쟁을 경험하며 우정, 신뢰, 양보,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게 된다.

한편 대부분이 외동인 중국 아이들에게 공란으로 비어있는 형제관계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외동정책에서도 허용되는 쌍둥이이다. 그래서인지 중국 당대문학에서 쌍둥이 남매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중국 당대 아동문학 중 30년이 넘도록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 중의 하나인 《피피루 총동원 皮皮魯總動員》 시리즈는 일란성 쌍둥이 피피루와 루시시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기발한 상상과 모험의 세계를 경험하며 겪게 되는 에피소드이다. 공부는 신통치 못하며 장난꾸러기인 피피루, 모범생이며 마음씨 착한 루시시는 때로는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는 경쟁관계이면서도 함께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며 돕고 의지하는 남매지간이다. 같은 모태에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더라도 확연하게 다른 이들 남매를 통해 남자와 여자의 성격과 관심사, 행동양식의 차이 등을 엿볼 수 있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회자되며 생각할 거리를 남겨준 화제작 《말쌍쟁이 쌍둥이 搗蛋雙胞胎》 시리즈에서도 쌍둥이 남매 송샤오마이熊小麥와 송샤오더우熊小豆의 좌충우돌을 잘 그려내고 있다.

소년소설 중에 2000년대 초까지 학원가를 휩쓸며 대대적인 사랑을 받던 《남학생 자리》와 《여학생 자메이》도 일란성 쌍둥이의 이야기이다.

주인공이 외동인 경우, 주인공이 성별에 따라 전개되는 내용과 소재에 제한이 있게 되지만 일란성 쌍둥이 남매일 경우에는 다룰 내용이 더욱 풍성해져 아동생활의 전반을 다룰 수 있게 된다. 태중에서부터 서로를 견제하며 경쟁하는 쌍둥이들, 독특한 형태의 형제관계이지만 중국 당대아동문학 작품 속에서 보이는 쌍둥이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사건을 맞서 함께 해결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며 소황제, 소공주의 사회현실에 대한 공란을 채워주는 형제관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남자는 개구진 악동으로, 여자는 순종적이고 공부를 잘하는 알파걸의 이미지로 다소 공식화된 면이 두드러진다. 여성을 두고 ‘半邊天’<sup>11)</sup> 이라고 일컬으며 여성의 권익에 어느 나라보다 민감한 중국에서 말괄량이 삐삐같은 톱보이 여자 쌍둥이를 중국식으로 창조해낸다면 어떨까? 중국 아동문학에서 보이는 쌍둥이와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보이는 쌍둥이와의 차이도 흥미로운 연구거리일 것이다.

이 외에도 한 부모 가정의 외동들이 부모들의 재혼으로 재구되는 새로운 형제관계도 존재한다. 이는 《QQ兄妹》 같은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문학 속에는 혈연인 형제관계가 아닐지라도 주인공 주위에 독특한 캐릭터를 지닌 친구들과 이로써 형성된 우애가 주요 모티프가 되기도 하는데, 이 또한 형제관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샤오에게는 늘 함께 붙어 다니며 각종 말썽을 불러일으킨 ‘못 말리는 사총사’가 있다.

마오차오가 말했어요. “내가 장다를 추천하면 장다가 나를 추천하는 거야. 마샤오는 탕페이를 추천하고 탕페이는 마샤오를 추천하는 거지. 봐! 그럼 우리 4명 모두가 뽑히는 거 아니겠어?” 이게 바로 원숭이 마

11) 毛澤東이 대약진(大躍進)운동 당시 내건 슬로건 중의 하나로 ‘여성이 하늘의 절반이다’는 뜻이다. 신시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던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차오가 말한 “4명 다 원원하는” 작전이랍니다. “좋아, 다른 말없이 이렇게 약속한 거다!” 장다가 한 손바닥을 내뻗자 마차오가 ‘ 짹’ 소리를 내며 그의 손바닥을 쳤어요. 마샤오도 ‘ 짹’ 소리를 내며 이들의 손바닥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탕페이 손만 빠졌네요. 그들이 모두 탕페이를 쳐다보자 탕페이는 건성으로 손을 들어 이들 세 명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손 네 개가 한데 모였다가 흔들흔들하더니 ‘어이’ 하고 큰소리를 치며 흘렀답니다. (중략) 이번에 마샤오는 대단히 화가 난 모양이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만은 부족해. 그러니까...” 탕페이는 즉시 마차오의 뜻을 알아차렸어요. “마샤오는 만화책을 좋아하니까 만화책을 주면 되겠다.” 탕페이는 그날 당장 서점에 가 최신판 만화책 한 권을 사서 마샤오에 선물했어요. 마샤오는 탕페이의 만화책을 받고는 다시 탕페이와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여전히 장다와 마차오는 무시했답니다. (중략) 마샤오는 마차오의 탁구 라켓을 받고는 마오차오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샤오, 마오차오, 장다, 탕페이 네 명은 다시 둘도 없는 사이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12)

못 말리는 악동 사총사인 마샤오, 마오차오, 장다, 탕페이는 반에서 추천으로 뽑히는 3대 모범생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 추천할 리 만무할 터. 이들은 4명 다 추천되기 위해 서로의 이름을 추천하여 모두 다 모범생이 되어보자는 계획을 세운다. 결과, 구두약속과 맹세, 손가락 걸기에도 불

12) 毛超說：“我選張達，張達選我；馬小跳選唐飛，唐飛選馬小跳。你們看，我們不是四個人都被選上了嗎？”這就是猴毛超的“四全其美”的計劃。“好，一言爲定！”張達伸出一手掌來，毛超啪的一聲，把他的一手掌拍在上面；馬小跳也啪的一聲，把他的一手掌拍在上面。就差唐飛的一手掌了。他們都看着唐飛心不在焉地把他的一手掌，放在三只手掌上。四只手掌疊在一起，搖几搖，然後嘩地吼一嗓子，四只手才分開。(中略) 馬小跳這次的气特別大，你光道歉還不行，還得……” 唐飛一下子明白了毛超的意思：“馬小跳喜歡漫畫書，我送一本書給他吧。”

唐飛當天就跑到報刊亭里，買了一本最新出版的漫畫書，送給馬小跳。馬小跳接受了唐飛的漫畫書，又重新開始和唐飛說話，但他還是不理張達和毛超。(中略)馬小跳接受了毛超的乒乓球拍，又重新開始和毛超說話，馬小跳、毛超、張達、唐飛四個人重歸于好，又成了形影不離的好朋友。楊紅櫻， 앞의 책, pp.61-75.

구하고 탕페이(湯佩伊)는 마샤오의 추천만 받았을 뿐 마샤오를 추천하지 않는다. 여기에 쓰디 쓴 배신감을 맛본 마샤오는 세 친구를 더 이상 이는 체 하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한다. 차츰 미안함에 마음이 불편해진 친구들은 마샤오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갖다 바치며 마샤오의 우정을 회복하고자 한다. 자신의 실속을 다 차린 마샤오는 친구들과 다시 둘도 없는 사충사가 된다. 피보다 끈끈한 우정을 맹세했던 도원결의(桃園結義)를 생각하면 마샤오와 세 친구와의 우정은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 이들 사충사의 의리와 우정은 전통사회에서 중시하는 가치라기보다 잘난 소황제끼리의 이익을 위한 모임, 결합 정도이다. 뇌물 하나에 넘어가 다시 우정을 회복하는 마샤오의 모습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작가의 펜에 희화된 물질 만능주의 행태를 모방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에 씩씩하기도 하다. 소황제가 가정에서 누리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의 부작용은 대인관계의 결핍이나 지나친 경쟁구도의 확산으로 치닫기도 한다. 가정에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소황제로 떠받들어지지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식의 형제관계의 경험과 인식이 중시된다. 때문에 아동문학이라는 간접경험을 통해 외동이라는 공간을 더욱 풍요롭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동문학에서 우애관계를 중요시 다룬 작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 4. 악동과 판타지: 반항과 모험의 소황제들

아동문학에서 학교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피터 펜은 웬디의 어머니가 같이 살자고 권했을 때 제일 먼저 “학교에 보낼 건가요?”라고 묻는다. 그만큼 그에게 있어 학교는 네버랜드에 남아 살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 만큼 혐오장소였다. 모험과 탐험류의 작품에서 학교는 규칙과 제한이 엄격한 부정적

인 이미지이다. 해리포터의 호그와트가 아닌 이상, 학교란 이미지 자체가 어린이들에게 환영받을 장소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할지라도 현대 아동문학에서 학교는 친구들과의 교류, 가정에서의 고민이나 스트레스의 탈출구 등으로 묘사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존재한다. 캐서린 패터슨의 《내 우산 같이 쓸래? *Flip-flop girl*》 혹은 참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한 연구가 많은 일본의 아동문학 중에 하이타니 겐지로의 《너는 닥스 선생님이 싫어나? きみはダックス先生がきらいか》나 중국에서도 스테디셀러로 사랑을 받고 있는 구로야 나기 테츠코의 《창가의 토토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등에 보이는 학교의 모습은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면이 있다. 반면 중국 아동문학의 대다수에서 학교는 자유로운 생각을 말살시키고 반복해서 쓰기와 암기를 강요하며 장시간을 들여 숙제를 내주는 장소로 묘사된다. 중국의 학교 속에는 스트레스, 변하지 않는 답답함, 차별이 존재하는 이미지가 오버랩된다.

마샤오는 매일같이 학교 끝나고 집에 와도 축구하거나 만화 볼 시간이 없었어요. 금붕어에게 먹이 줄 시간도 없었구요.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숙제를 해야 했죠. 숙제는 해도 해도 좀처럼 끝나지 않았어요. (중략) “이런 어린 아이한테 이토록 많은 숙제를 내주다니, 너희 담임 선생님은 어찌 그리도 무자비하시나?” 마티엔 씨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말했어요. 마샤오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어릴 때는 숙제가 많았어요?” 마티엔씨가 대답했어요. “별로, 20분이면 다 할 수 있었지.” “와, 고작 20분이라고요?” 마샤오는 자기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빠랑 함께 놀 수 있을 텐데 말이예요. 벽시계가 10번 울리네요. 벌써 밤 10시가 다 되었습니다. 마티엔 씨가 또 물었어요. “마샤오, 다 끝났니?” 이번에는 마샤오가 대답을 하지 않네요. 알고 보니 숙제 공책에 엮드린 채 잠이 든 거예요. 마티엔 씨는 아들을 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나서 마샤오의 아직

다 쓰지 못한 새단어 노트를 보고는 대신 이어서 써주었습니다. 숙제를 하면서 마티엔 씨는 내심 아들의 필체를 기가 막히게 흉내 내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답니다.<sup>13)</sup>

이후 아들을 대신해서 숙제를 해준 마티엔 씨는 맞춤법을 틀려 학교에 불려 와서 선생님께 혼나야했다. 맞춤법이 틀린 글자가 있으면 한 글자당 100번씩 쓰게 하는 선생님말씀대로 마샤오의 아버지는 교무실 한 구석에서 다 쓰고 나서야 학교를 나설 수 있었다.

소황제를 향한 부모의 애정과 관심은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기대로 치닫게 되고, 아이들은 사회에서 성공하고 기대에 부응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점점 더 억눌리고 있다. 공부가 출세의 도구였던 동양의 문화권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어느 시대에나 뜨거웠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식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이전 시대보다 더욱 다른 양상으로 높아진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이 아이의 사교육비로 투자되고 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명문을 찾아 고액의 수업료를 감당하고 있다. 중국 당대의 어린이들은 외동이라서 더욱 처절해지는 사회의 무한 경쟁 속에 던져지며 고민하고 있다.

중국의 당대 동년소설 속에서 다소 독특한 악동의 출현이 찾아지고 있다. 바로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에 특출한 아이가 아니라 공부는 못하지만 생각이 긍정적일 때로는 어리석기까지 한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한 악동이다. 마샤오

13) 馬小跳每天放學回家，沒時間踢足球，沒時間看動畫片，沒時間喂金魚，放下書包就做作業。做呀做呀，總也做不完。(…)馬天笑先生十分同情馬小跳：“這麼小的孩子，做這麼多的作業，你們老師怎麼忍心？”馬小跳問他爸爸：“你小時候作業多不多？”馬天笑先生說：“不多，二十分鐘，全部搞定。”“哇，才二十分鐘！”馬小跳羨慕得……“還有那麼多時間，用來幹什麼呢？”馬小跳真後悔，後悔沒能生在那個時代，跟他老爸一塊玩。牆上的鐘敲了十下，已經是晚上十點鐘了。馬天笑先生問：“馬小跳，完了嗎？”這次馬小跳沒有回答他，原來他已經趴在作業本上睡着了。馬天笑先生把他兒子抱上床，見馬小跳的生字還沒抄完，便接着帮他抄。一邊抄，一邊心里沾沾自喜：他模仿兒子的筆迹還挺像的。楊紅櫻，《貪玩老爸》《淘氣包馬小跳系列-1》，接力出版社，2004，pp.29-30.

나 피피루, 작은 머리 아들 등은 모두 흔히 학교에서 말하는 악동이지만 이들의 엉뚱한 에피소드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아이들의 시각과 가치관에 근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범생과 거리가 먼 악동들과 모범생을 요구하는 학교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그럼 이제 루시시네 학교로 간 삼촌을 한번 볼까요? 삼촌은 루시시로 변해 가지고 학교에 가면,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생 공부야 뭐 어려울 게 없지!’

그러나 삼촌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삼촌은 하루 종일 피곤해서 한마터면 쓰러질 뻔했습니다. 첫째시간부터 선생님은 배워야 할 것들을 엄청난 속도로 학생들의 머리에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 양도 많고 속도도 빨라서 미처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삼촌은 요즘 아이들의 머리가 그렇게 심한 충격에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시간은 그래도 잘 견뎌 낸 셈이었습니다. 삼촌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터져 버릴 것만 같았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삼촌이 틀리게 대답하자, 선생님은 쉬는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스무 번이나 쓰는 벌을 주었습니다.<sup>14)</sup>

쌍둥이 동생 루시시는 아빠가 외국에서 선물로 사다주신 크림이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그대로 변신시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루시시는 변신 크림을 바르고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서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평소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위선적인 모습도 보게 되고 별 볼일 없는 줄 알았던 오빠 피피루의 멋진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던 중, 아동

14) 정위엔지에, 심봉희 역, 《콩나물병정의 모험》, 웅진 주니어, 2007, pp.49-51.

잡지의 편집장인 삼촌과 루시시는 서로의 모습으로 맞바꾸어 변신하게 된다. 루시시는 삼촌의 모습으로 출판사로 출근하고 삼촌은 루시시로 변해 학교로 가게 한다. 삼촌은 요즘 학생들의 고달픈 학교생활을 경험하며 혀를 내두른다. 한편 변신 크립으로 교장선생님으로 바뀐 쌍둥이 오빠 피피루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한창 몸이 자랄 초등학생들이 긴 시간동안 숙제를 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된다면 그날 배운 것을 수업시간 안에 이해시키도록 하고 숙제를 내주지 말라고 명한다. 그 결과, 기말시험에서 피피루네 학교 전체 성적이 같은 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 일등을 차지하게 쾌거를 거둔다.

1990년대 중반부터 유머러스한 작품과 판타지가 대세를 이루며 악동들과 이들의 판타지 모험이 두드러지는 까닭은 무엇일까?<sup>15)</sup> 학원풍 아동문학의 악동은 활발한 성격, 선량한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꽉 막힌 학교를 좀 더 인간다운 곳으로 느끼게 하고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성격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여주는 소망과 희망의 반영인 것이다.

《판타지 아동문학과 사회》의 저자 차은정은 ‘인간은 가장 견디기 힘든 순

15) 北京師範大學 王泉根 教授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중국 아동문학의 十大現象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1) 동물소설의 대가 선스시의 출판계약으로 보이는 아동문학의 거대한 시장성 2) “성장”의 모티프 3) 《男生賈里》로 보이는 학원소설의 열풍 4) 여고생이 쓴 《花季雨季》의 폭발적인 반응 등으로 보이는 저작 저연령화 현상 5) **유머의 강세** 6) **판타지의 강세** 7) 동물이야기의 선풍적인 인기 8) 4,5대 아동문학 작가군의 활약 9) 과학상상 및 우연 관련 아동문학 장르의 빈약함 10) 아동문학과 기업 간의 결합 이벤트, 문학과 상업 간의 연계가능성 발견 등이다.

본래 유머물과 판타지는 아동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르이지만 중국에서는 1998년 《판타지문학중국소설총서 大幻想文學中國小說叢書》와 1999년 《중국유머아동문학창작총서 中國幽默兒童文學創作叢書》가 출간되어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같은 해 베이징에서는 “중국 유머 아동문학 창작 연구 토론회(中國幽默兒童文學創作研討會)”가 개최되어 다음세대에 어린이들의 교육과 소양개발에 유머스런 아동문학작품들을 연구하고 창작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 사회적으로 유머와 판타지를 요구하고 수용할 만한 분위기에 이르렀다. 王泉根, <世紀之交兒童文學的十大現象>, 《現代兒童文學主潮》, 重慶出版社, 2000, pp.236-245.

간에 간절히 자유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는 인간의 행복에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회복 욕구가 반드시 내재되는데 그럼으로써 인간은 현실 속에 존재해야 하지만 결핍되어 있는 것들의 회복을 소망하며 환상세계로의 추구를 시도한다. 판타지 아동문학의 환상세계는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실의 제약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선하고 새로운 공간을 꿈꾸게 하며 그러한 인간의 꿈이 판타지의 환상세계 속에서 자유로워진다.’<sup>16)</sup> 라며 판타지와 현실세계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중국의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펼쳐지는 판타지는 어린 학생들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단절된 현실의 벽에 대한 반역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 5. 나가며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이 시작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獨生子女制)’은 소황제라는 사회적인 용어가 생겨날 만큼 외동자녀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는 사회분위기를 낳았다. 동시에 시장 개방정책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중국의 아동문학은 공전의 다양한 주제와 시도로 새로운 세대에 발맞추고 있다. 당대 중국 아동문단에 생겨난 여러 현상들을 아동소비자 주축인 소황제를 중심으로 고찰해보며 세계의 아동문학과는 구별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이상적인 놀이 파트너 같은 아빠의 등장이다. 이는 아동에 대한 중국 사회의 중시를 반영함과 동시에 현실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시대의 당부와 바람을 담은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남초(男超)현상으로 남아의 비율이 더 많은 현 중국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이상적인 부자관계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

---

16) 차은정, 『판타지 아동문학과 사회』, 생각의 나무, 2009, p.296.

국 당대 아동문학에서는 쌍둥이, 재혼으로 생성된 새로운 형제관계 혹은 외동끼리의 각별한 친구관계를 통해 소황제에게 비어있는 형제자매의 공간을 벌충한다. 외동으로 자란 세대에게 문학은 어떠한 형제관계 및 대인관계를 반영하고 소개할지 그 역할이 기대된다. 셋째, 어느 시대나 경쟁은 치열했으나 소황제 문화 현상 속에서 더욱 치열해진 경쟁 분위기 속에서 이전 아동문학 작품 속에서 찾기 힘든 악동이 등장한다. 비록 공부도 못하고 다른 특별한 재주를 지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기대되는 아이도 아니지만 마음이 따뜻하며 배려심이 깊은 악동을 등장시켜 생각할 거리들을 제공한다. 또한 억압되고 단절된 학교현실 속에서 판타지를 동원하여 이를 수 없는 현실의 소망들을 상상해가며 극복한다. 이것이 학원 소설에서 유머스런 작품이 강세를 이루는 까닭이다.

2000년, 중국 교육부는 《전일제 9년 의무교육 국어과목 교과과정 표준 소日制九年義務教育語文課程標準》을 제정하여 아동문학을 국어과목으로 적극 활용해 그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물론 아동을 위한 아동문학이라지만 성인저자가 아동 독자를 대상으로 쓴다는 점에서 항상 채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각 가정의 외동자녀들의 입시경쟁과 스트레스가 더욱 고조되는 마당에 이러한 교육정책이 과연 긍정적인지는 숙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비평가들은 성인들의 그릇된 가치관, 세계관을 담은 아동도서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을 지적하며 도서관에 있는 아동도서를 없애거나 아님 여가시간에 아동도서를 읽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sup>17)</sup> 아동을 위한 아동문학은 어떠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지 아동문학과 다른 학제간의 연구와 더불어 아동문학 종사자들의 활약이 필요하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발전기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열악한 공장에서 저

17) 마리아 니콜라에바, 앞의 책, p.111.

임금으로 과도한 노동 때문에 죽어갔다. 심각한 아동의 노동과 인권문제는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나 찰스 킹즐리의 《물의 아이들》에서 작가의 손에 의해 성공적으로 그려졌고, 세인들에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더니 급기야는 정부에서 아동노동을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된다. 아동문학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소황제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대도시의 중산층 계층의 외동자녀들을 대상으로 문학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짚아보았다. 이들은 의식주 문제에 전혀 걱정이 없는 세대로 그들만의 문화를 향유한다. 반면 도농(都農)간의 경제적 빈부 차이가 극심한 도시의 얼룩진 모습과 해체된 가정의 아픔이 공존하는 당대 중국을 바라보며 이들의 아픔을 반영한 당대 아동문학 작품들을 발굴하고 연구해야할 필요를 느낀다. 아울러 우수한 아동작가의 손에 그려진 농민공 자녀나 하방된 근로자들의 삶이 세인들에게 알려지고 변화될 수 있는 문학의 힘이 존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독자끼리 결혼했을 경우 자녀를 2명 이상 둘 수 있다는 새로운 정책은 당대 아동문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도 궁금하다.

2011년 5월, OECD 국가 내에 한국의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최하위라는 보도를 접했다. 아시아권의 일본이나 중국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중국의 당대 아동문학과 아동과의 소통에 기대를 걸며 한국의 아동문학에도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문학으로 가늠하게 되길 바라본다.

《參考文獻》

- 鄭淵潔 著, 《皮皮魯總動員第一輯》: 皮皮魯和罐頭小人, 21世紀出版社, 2006.  
\_\_\_\_\_, 《皮皮魯總動員第三輯》: 皮皮魯和紅沙發音樂城, 21世紀出版社,  
2007.
- 楊紅櫻 著, 《淘氣包馬小跳系列》, 接力出版社, 2004.
- 鄭春華 著, 《大頭儿子和小頭爸爸全集》, 少年兒童出版社, 2000.
- 黃蓓佳 著, 《我要做好孩子》, 江蘇少年兒童出版社, 2008.
- 秦文君, 《男生賈里全傳》, 少年兒童出版社, 2000.  
\_\_\_\_\_, 《女生賈梅全傳》, 少年兒童出版社, 1999.
- 張美妮 著, 《百年中國幼童兒童文學精品文叢-童話卷》, 新世紀, 2002.
- 정춘화, 하진이 역, 《사고몽치 아들과 못 말리는 아빠》1-6, 문학수첩 리틀북, 2010.
- 양홍영, 심봉희 역, 《개구쟁이 마샤오》1-5, 예림당, 2009.
- 정위엔지에, 심봉희 역, 《빨간 소파의 비밀》, 웅진 주니어, 2007.  
\_\_\_\_\_, 심봉희 역, 《콩나물 병정의 모험》, 웅진 주니어, 2007.
- 정원친, 김윤진 역, 《하마 선생님의 음식백화점》, 주니어 김영사, 2003.
- 황베이지, 양태은 역, 《진링의 일류중학교 입학소동》, 주니어 김영사, 2010.
- 王泉根, 《現代兒童文學主潮》, 重慶出版社, 2000.
- 梅子涵 等著, 《中國兒童文學五人談》, 天津:新蕾出版社, 2008.
- 曹文軒, 《中國八十年代文學現象研究》, 作家出版社, 2003.
- 마리아 니콜라예바,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조희숙 외 4인 역, 교문사, 2009.
- 존 로 타운젠드, 강무홍 역, 《어린이 책의 역사》I·II, 시공주니어 1996.
- 차은정, 《판타지 아동문학과 사회》, 생각의 나무, 2009.
- 이영희 외 17인, 《이야기의 축, 관계의 모티브》, 『아동문학사상』 제16호, 도서출판작가, 2009.
- 캐린 코우즈, 《라캉의 정신분석학과 페미니즘 이론을 통한 아동문학 작품 읽기》, 도서출판 작은씨앗, 2008.
- 천다아, 《문화대혁명 아동성장기 중국의 아들》, 이지북스, 2007.
- 루쉰 저, 이욱연 역,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 서울: 예문, 2005.

錢淑英, <雅努斯的面孔: 魔幻与儿童文學>, 上海師範大學 博士論文, 2007.

윤경우, <바링허우 세대 선두주자들 :小皇帝<샤오황디>, 중국을 뒤흔든다 :신세대의 유연성과 새로운 감각으로 중국의 미래 개척>, 《月刊中央》. 36권 9호 통권 418호. 2010.

홍순도, <산아제한 30년에 총각은 슬피 울고 여자 아이 죽어가네>, 《시사IN》, 서울 : 참언론, 제19호, 2008.

Melinda Liu : 최한립 번역, <1자녀 '소황제' 중국 발목 잡나 :30년간 이어온 인기없는 정책의 후유증>, 《뉴스위크韓國版》. 제18권 제11호 통권822호, 서울 :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8.

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 소황제 신드롬과 마케팅 시사점>, 서울 :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이항복, <르포 - 상하이의 바링허우를 만나다>, 《월간중앙》, 2010년 9월호.

송연옥, <21세기 중국 아동문학의 현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우논총》 제21집. 2010.

<http://baike.baidu.com/view/846266.htm>

<http://baike.baidu.com/view/5160.htm>

<http://baike.baidu.com/view/253962.htm>

<http://baike.baidu.com/view/23370.htm>

### 《Abstract》

The 'One-Child Policy' implemen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since the 1980s has caused "Little Emperor Syndrome" (小皇帝-xiao huang di), which results from the child's sole command of the attention of their parents. China's economic growth around the same time also greatly increased the amount of money parents spent on their children, which resulted in a variety of themes for children literature.

When examining "Little Emperor Syndrome" and the trend in contemporary Chinese children literature,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children literature of China and that of other countries : Firstly, we can see many "Friendly Daddy" characters in Chinese children literature. This reflects China's children-focused

atmosphere and the ideal role of fathers in China. It also shows the emphasis on the father's role to solve the problem of excess males in China. Secondly, twin characters, step-siblings from remarriage and characters having very close friendships among only children frequently appear in Chinese children literature to supplement the absence of siblings. Thirdly, we see many cheerful main characters who are not easily seen in the real school circumstances. Although these characters are not good at studying and don't have any special skills, they are warm-hearted and thoughtful. Little Emperors, having the heavy burden of academic expectation, get a vicarious thrill by seeing these characters do what they themselves cannot do in the oppressive reality. Also fantasy and humor can be very comforting for them and this is why fantasy and humor genres are the general trend in contemporary Chinese children literature. Fourthly, we can see many children novels published in a serial form. Many of them have a separate plot in each volume and are published as an expanded series up to dozens of volumes. These long stories can include various real life situations and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characters, which enables children readers to feel like making friends with the story characters. The great success of the series in children literature shows that Little Emperors have the purchasing power to enjoy their own cultures and that many excellent writers have the ability to meet their readers' expectations.

**關鍵詞** : 小皇帝, 當代 中國 兒童文學, 유머와 판타지, China's juvenile literature , Little Emperor Syndrome

이 논문은 2011년 5월 20일에 접수되어 2011년 6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1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